철옹성 애착과 하나님말씀

(민22:21~41)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철옹성 애착과 하나님말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철옹성 애착과 하나님말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거대해진 시장이 바로 화장품 시장입니다. 또한 이런 시장 이야기를 할 때에 요즘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미래의 전기 차 시장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대한 시장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대하게 남아있을 것인데 바로 영성 시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해있었습니다만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처음부터 이 '영성 시장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하는 목회를 위해서 도입되는 것들 중에는 심리학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고 괄목할만한 것은 경영학입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교계는 영성 장사꾼들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채가 되었습니다. 영성을 사고 그것에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위한 설교가 많이 투입되는데 시장을 경영하는 것이고 영성의 장사꾼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성 장

사꾼이 되어서 영성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소름끼칠 정도로 무서운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 장사꾼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영성 구입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미친 행동'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악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미친 행동과 사악한 길이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인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 발람이 640km나 떨어져있는 모압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진노하면서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는데 정작 영적 세계를 이 땅에 끌어들여서 팔아먹고 있는 영성 장사꾼인 발람은 못 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서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갖게 해준다는 낭설에 사로잡히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 장사꾼인 발람과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 대화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 본 처음의 본문을 보면 "발락이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는데 복채를 들고 갑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셔서 사신들에게 안 가겠다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니, 이번에는 모압 왕 발락이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어마어마한 복채를 제시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고 '존귀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나라의 벼슬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셔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귀타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어서 나귀가 그것을 보고 피합니다. 피하면 그 앞에 또 나타나고 피하면 또 나타나고 하는데, 나중에는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서게 되었다가 피하려고 하다 담에 발람의 발을 비비게 됩니다. 그러다 나귀가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으니 발람이 나귀를 세 번을 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라고 하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라고 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데 '사악한 길을 걷는다.'고 하시면서 칼로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신 후에 마지막에 또 '가라'고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사신 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 사신 때에는 '가라'고 하셨고, 가고 있는 발람을 사자를 보내서 칼로 쳐 죽이려고 하시며 '네가 사악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하

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마지막에는 대화 끝에 또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발람의 태도를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나귀 사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이 발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해석하는 열쇠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나 유다서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 발람의 사건에 대한 해석의 키를 주셨습니다. 벧후2:15~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미친 행동'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의의 삯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삯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애착입니다. 이 애착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전제되었고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의 발람은 복채에 대한 애착으로 마음이 철옹성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옹성'은 부서뜨리려야 부서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철옹'은 철로 만든 항아리인데 무슨 수로 부서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이 철옹성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영성 장사꾼으로서, 영성을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인 복채에 대한 애착이 철옹성처럼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갖는 애착이 철옹성 아닙니까? 건강에 대해서 갖는 애착, 가족에 대해서 갖는 애착, 나라에 대해서 갖는 애착, 직장인 같으면 승진에 대해서 갖는 애착들이 철옹성입니다. '철옹성'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철옹성의 애착 자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철옹성 애착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발람은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복채에 대한 애착이 철옹성으로 마음에 유지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인데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복채에 대한 철옹성과 같은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복채 가지고는 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신들이 복채를 앞에 내놓고서 모압 왕이 당신의 영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 정도 복채를 가지고 이런 큰 건수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때, 왜냐하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모압에서 발람이 사는 메소포타미아까지 640km입니다. 또한 모압 왕 발락은 엄청난 간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무찌르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떨면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군대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 세계의 힘을 3차원인 인간 세계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데 영성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수였기 때문에 그 옛날에 640km라는 거리를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발람을 초정하러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발람으로서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채에 대한 애착이 철옹성처럼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채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라면 지금 내 앞에 내놓는 이런 정도의 복채로는 말이 안 되므로 하나님의 ‘가지 말라’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기(밀당)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발람의 계산이 적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신들을 돌려보내자 복채의 크기가 무한대로 확대되어서 되돌아옵니다.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라고 하고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복채에 대한 애착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다 장사꾼의 마음으로 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러이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채 애착이 마음에 철옹성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할 때 지금 진행되는 대화로만 보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가려진 발람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신 것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의 복채에 대한 철옹성 같은 애착이 변할 수 없으니 너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 이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하시면서 칼을 들고 쳐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발람의 길이 사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시려고 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습

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향해서 가는데 사자를 보내서 칼로 쳐 죽여도 마땅할 정도로 사악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가는 것이 사악하다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사랑하고 좋아해서 붙은 마음이 애착인데, 이 애착이 철옹성같이 어떤 말씀에도 변화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상태가 전제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내가 나로 있을 때 유지되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사악한 것이 되고 미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악함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미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돈이 마음에 달라 붙어있습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내 승진, 내 노후문제, 나라 등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숭고하고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이타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철옹성 같은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갑니다. 철옹성 같은 애착을 갖고 있는 그것을 영성의 힘을 빌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갈 때에 사악한 것이고 미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에게 예배당 건축이라는 애착이 달라붙게 되면 이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대형교회가 문제점이 있다, 헌금으로 몇 백 억짜리 예배당을 지으면 되느냐? 헌금으로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별의별 얘기를 다해도 예배당의 철옹성 같은 애착을 변개시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배당을 지어라'는 명령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 예배당을 지으라는 명령에 종속되어서 교인들의 모든 생활과 활동과 마음가짐과 신앙도 다 재정립시키려고 합니다. 건축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고, 건축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건축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복을 약속 받는 것이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철옹성 같은 애착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마는데 이것이 바로 미친 행동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은 심지어 선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미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 3차원의 세계로부터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의 힘을 3차원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철옹성의 애착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성취하라고 4차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해야 합니다. 왜 출애굽을 위한 3차원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3차원에는 애착을 가지고 붙들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3차원의 애착을 가질 만큼 좋은 것들을 다 등 뒤로 돌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은 4차원의 힘을 끌어들여서 성취하고 성공해야 할 곳이 아니라, 4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 해야 하고 해방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3차원에 대한 어떤 철옹성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빌4:13절에 "내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조차도 발람 같이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나 무당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 같은 이런 시대에는 성경이 나 뒹굴고 있습니다.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성경까지 있어요. 그러나 아예 안 듣는 자들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철옹성의 애착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QT가 미친 행동이 될 수가 있고, 설교가 사악한 길을 걷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사악한 미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붙어있는 3차원 세계에 붙어있는 것들을 성취하겠다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의 사악하고 미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는 이유는 3차원 세계에 대한 애착이 철옹성 같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드리면, 당연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3차원으로부터의 출애굽이 됩니다. 이것이 본래의 복음의 의미이고,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으니 애착도 없습니다. 애착 없이 3차원을 살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이 철옹성 같은 애착을 깨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애착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철옹성을 이룰 만큼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먼저 보이지 않고 철옹성 애착이 먼저 형성된다면 십자가복음도 변질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3차원의 세계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 수 있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만 살 수 있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형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이따위 미친 행동과 사악한 길이 말씀이라고 주어지고 거기에 열광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발락같이 3차원의 문제를 4차원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 싶은 사악한 구매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 구매자들의 수요에 응하는 사악한 공급업자들이 강단에 서게 되면서 전 세계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영성 시장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활화가 되지 않는 십자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철옹성 같은 세상의 애착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깨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이고,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출애굽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4차원의 영성을 지닌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철옹성 같은 애착으로 붙어있는 것에 대한 내 뜻과

내 소원이 영성적 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를 말아먹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철옹성 같은 애착은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고, 교인으로 생활하는 직장에 있고, 미친 행동과 사악한 길이 교회로부터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 시장이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